

◆머느리권씨 열전 15-1

‘역올한 人生은 있어도 역올한 역사는 없다’

남이南怡장군의 부인 권씨 (추밀공파 19세, 좌의정 권람權擘의 딸)



사친 남이 장군 부부 묘와 남이 장군 초상 남이 장군 부부 묘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있다(왼쪽 사진). 남이의 부인은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천거한 권력의 딸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비정함을 느끼게 한다. 서울 용산구 용문동 사당에 걸린 남이 장군 초상화다(오른쪽 사진). 매년 10월 1일 사당에서는 남이 장군 대제를 연다. 남이 장군이 역올하게 죽었다고 생각한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모셨다. 사진가 권대균

금수저 장인과 사위

남이(南怡, 1443-1468)와 권람(權擘, 1416-1465)은 워낙 유명하고 레전드급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내려오는 대단한 인물들이다. 여기서는 이 두 인물이 사위와 장인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역사적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초점을 둔다.

〈남이〉는 개국공신 남재(南在, 1351-1419)의 현손이고 조부는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이고, 할머니는 태종과 원경왕후의 넷째 딸인 정선공주(貞善公主)이다. 부친은 그저 지방현령급 종6품 주부(主簿)인 남반(南份)이고 모친 남양 흥씨도 현령의 딸이다. 17세에 무과에 장원급제했다지만 장원 기록은 없고 평소 그가 장원급제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 했다고 한다. 그 뒤 짧은 기간이 일찍 월장하고 세조의 총애를 받는다.

어마무시한 태종의 정몽 외손자이니 아마 그 무골 기질을 타고 났을 것이다.

1467년(세조 13년) 함경도 일대에서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귀성군 이준이 대장이 되고, 강순(康純), 어유수 등과 함께 토벌에 참여, 선봉으로 출정 중 그의 훈공이 조정에 알려져 바로 당상관으로 승진, 행 부호군(行副護軍, ‘행’은 실질적 직무수행)을 거쳐 행 호군이 되며 남이 평정된 뒤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관에 책록, 의산군에 봉군되었다. 곧 서촌면에 출몰한 건주위(建州衛) 여진족을 정벌할 때에도 평안도선위사 윤필상의 지휘하에 우상대장이 되어 선봉으로 적진에 들어가 만포로부터 과거강을 공격하여 여진족의 수교 이만주 부자를 참살하니 2등 군공에 책봉되었다. 공조판서를 거쳐 1468년(세조 14년)에는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했으며, 그해 27세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었다. 즉 요점으로 치면 16세 소위인관, 25세 대령급으로 참전 공로, 26세에 사단장, 국난극복 1등급 무공훈장, 27세에 상공부장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등 군권 완전 장악에다가 대통령의 직계 파벌까지 된 것이다. 그러나 성격이 호방 하다보니 거들먹 거리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엘리트이고 공도 세우고 왕 세조의 총애도 다 받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다.

〈권람〉도 역시 개국공신 권근(權近, 1352~1409)의 손자이고, 24살에 문과 장원급제를 했고 사헌부 감찰, 25살에 24살의 수양대군과 함께 『역대병요』를 편찬하였다. 1453년(단종 1년) 김종서를 몰아낼 때 앞장섰던 공로로 정난공신 1등관으로 녹훈되고, 승정원우부승지에 특진, 1455년 세조 즉위 후, 수충위사책정난동덕좌의공신(輸忠衛社策靖難同德佐翼功臣) 1등관으로 이조 참판 길창군, 1458년(세조 4년)에는 수찬관으로 신숙주 등과 함께 『국조보감』을 편찬하는데 참여하고, 활을 잘 쏘았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횡포가 심하고 많은 축제를 하여 여러 번 탄핵을 받았다. 우찬성과 좌찬성,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길창부원

군으로 진봉되었다. 2남8녀를 둔 딸부자로 신숙주(연산군 장인), 남이와 유응부, 김문기 등 사육신에 속하는 인물이 사위이다. 일찍이 수양대군(세조), 한명회(권력지향의 대명사), 신숙주(유능한 관료)와 친하게 되어 자의반 타의반 출세길을 간다. 그는 조부 권근의 ‘응제시(명태조와 나는 단군을 언급할 시)’에 주를 단 ‘응제시주’를 저술하였다. 세조, 권람, 한명회는 1살 씩 차이로 한명회가 제일 나이가 많다. 공교롭게도 사육신 신숙주, 이계, 박팽년은 세조와 동갑이고 성삼문은 그 한 살 아래이다.

권람의 딸과의 인연

남이장군은 역올하게 죽었다고 하여 유명세를 타듯이 많은 에피소드가 전해오고 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는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날 큰 길가에서 놀고 있을 때 하인 한명이 무엇인가를 써서 지게에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게 위에 딱하니 귀신 하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니 하인의 뒤를 따라가니 재상이었던 권람의 집으로 들어갔고 이어 곡성이 나서 물어보니 권람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남이는 권람에게 딸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 이 말을 들은 권람은 반신반의하며 승낙, 남이는 죽은 권람의 딸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가 지게 위에 있던 귀신이 앉아있고 귀신은 남이장군의 기상 넘치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아나버렸다. 딸은 살아났고 권람은 남이의 기상에 감복하여 딸과 혼인을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상 권람이 점을 치니 자신의 딸도 단명할 운명이고 남이 역시 단명할 운명이나 권람은 그 꼴을 보기 전에 죽는다고 하니, 천생연분이다 생각하곤 혼인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권람의 점괘대로 남이장군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기 전에 자녀 없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권람도 남이 사망 3년전에 50세로 병사한다. 남이가 이어 결혼한 부인은 고성 이씨이고 남이와 함께 사형당한다. 권람의 부인 영원군 부부인도 같은 고성 이씨로 남이의 장모이다.



문제의 북정가사. 미주공공 미덕국으로 변조. 유자광이 중종 때 주조위왕走肖鳳포식 조광조 제제도 이런 식의 복사판 사진 한자신문

남이의 죽음과 배경

남이의 죽음은 역시 역사적 인과응보이며 기승 전결이다. 세조가 단종폐위의 작란(作亂)을 한명회와 같은 소인배들과 모의하여 일을 만드니 이에 참여한 자들이 공신이 된다. 소위 정란공신이라 하고 1등에 수양대군, 권람 2등에 권준, 3등에 성삼문·권인·권경 등이 보인다. 한명회를 비롯한 이른바 원훈공신으로서 여기에 개국공신의 2세대가 합하여 훈구파가 된다.

이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니,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위하여 ‘죽일 자만 죽이고’ 왕자의 난 공신들도 사실상 제거 또는 낙향시킨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애초부터 전혀 정통성이 없고 오로지 악한 왕권을 명분없이 짓밟고 등극하니 부작용이 많아진다.

조선왕조가 고려의 불교와 사원경제의 부패, 귀족의 부의 독점과 민중의 착취로부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등장하고 나서 유교문화의 민본주의가 불교 60년 만에 무너지는 것이다.

세조도 말년에 훈구공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한다. 한명회, 신숙주 등은 뒤로 밀어내고,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이를 평정한 구성군 이준, 남이장군, 강순 등을 급속 등용한다. 이준은 20대에 영의정(국무총리), ‘남이’도 20대에 병조판서(국방장관 겸 합참의장), 강순은 이들 보다 50세가 많은 나이지만 우의정으로 하여 신진세력화한다. 그래서 기존 세력을 압박한다. 여기서 또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 19세의 예종의 등극을 못마땅아워서 옥상옥(屋上屋)인 ‘원상제도(院相制度)’를 급속하여 한명회 수구들을 권력화 시켜준다. 5공백 전두환이 기희환 상왕제도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임종 전날 예종의 즉위시 부터 치룬다. 나름 왕권을 위한 장치를 모색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원죄가 많은 복잡한 구조로 꼬이게 만든 것이다.

예종은 등극후 1년2개월 만에 사망한다. 그를 노획한 한명회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위인긴 하지만 자기 딸은 이미 죽고 없고, 찬밥 신세로 전락한 것보다는 ‘어린 것이 제 멋대로?’하는 생각을 했고 뭔가 음모를 꾸미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종은 평소 시기 질투해오던 명장 ‘남이’를 거어어 천하의 모사꾼 유자광의 작란질을 빙자하여 무참히 제거한다. 당시 구성군 이준은 나름 처신을 잘하여 모면하고 나중에 귀양살이를 떠돌다 사망한다.

여기서 예종은 그 어린 나이에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을 엄격히 시행한다. 즉 권신의 집을 방문하여 청탁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전에 고려 말 과전법이라고 관료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토지를 쥐서 권리를 보장 하던 것을 ‘현직’에 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러니 현직에 있을 때 마구 해먹으려고 백성을 수탈하고 관직을 팔아먹는다.

이러니 기득권 수구들은 공작을 꾸미면서 먼저 신진세력의 중심이며 위협적이면 자신들을 유승게 하는 남이부터 예종의 시기심을 이용 억지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강순은 ‘남이’가 끌고 들어가 같이 죽게 되니 이는 팔순인데도 몸을 사리며 목숨을 부지 하려다가 죽는 것이다.

이후 20세의 예종이 갑자기 멸절하다가 죽는데 겨울인데도 시신이 검은 색이었다고 하니 뭔가 수상한 것이다. 그 뒤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이 있으나 4살이라고 하여 제외하고 한명회의 딸의 사위인 자율산군을 등극 시키니 그가 성종이다.

모사꾼 유자광은 세종때 태어나 결국 중종반정에도 가담, 공신이 되어 영화를 누리지만 연산군때의 무오사화 기획자로의 원죄는 끝내 유배지 사망으로 끝을 맺고 후손은 천민이 된다. 남이는 죽었지만, 남이섬으로 남아 있고 민중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수호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조선에 충무공은 이순신이지만 9명이 있는데, 이중 구성군 이준과 남이장군도 충무공이다.

그리고 ‘2016년에 남이장군(1441~1468)의 19대 후손이자 고 남승범 북한 김책공업종합대 교수의 아들인 카넬 남 불가리아 소피아국립대 교수(59·지리학 및 국가안보학)가 공학을 찾아서 아버지 남 교수가 북한에서 재혼해 낳은 1남2녀 중 둘째인 이복 남매가 상봉했다.’는 기사가 있으니 과연 ‘남이’의 후손이 남아 있었는지는 알아볼 일이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세계 양궁 제패의 저력, 전통 활쏘기 국궁

권성욱 생활스포츠지도사·청소년국궁지도사

학교체육 공도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향교 사찰 등 전통문화 시설 활용을 통한 활성화와 전국 시도에 활쏘기 체험교육관 건립과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활터에 청소년을 위한 근거리 표적을 두어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근사 거리의 표준화와 사거리의 다양화, 교재개발과 장비공급, 전국 및 시도대회 확대를 통한 동기부여와 삼급학교 진학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도 동기부여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

초등학생은 학년별 신체적인 차이가 커서 개개인에 맞는 장비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교사 비중이 높아 활쏘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중학생들은 정서적 불안함이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입시에 올인하고 있어 청소년 활쏘기에 장애요인이 되지만 잠시 스트레칭을 하고 정신적 휴식을 취하면 오히려 집중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교원과 교장연수 교육 시간에 홍보하여 전통문화 공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진흥법,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법(문화재보호법), 학교체육진흥법, 평생교육 진흥법 등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행사 및 문화유산 전승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국궁교육 지도법

학교 국궁 교육과정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은, 실기교육의 반복 연습을 통하여 사법의 단계별 표준 이론을 통한 자세 갖춤과 공도의 예절이란 개념으로 교육하면서 사풍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존감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초·중학교에서는 이론 교육보다 자세 형태를 갖추는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유연한 공체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교사와 강사는 평생 공체의 기틀을 세워준다는 의식을 갖고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과정에서의 표준 자세 갖춤은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시작이므로 표준 자세에 의한 실기 위주로 교육하고, 용

구 관리를 스스로 철저히 하도록 하며, 부원의 협력과 결집을 위한 사회성 교육에도 중시해야 한다.

“조선의 궁술” 교범의 사법 지침인 집궁제원칙은 유업전 활쏘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활쏘기의 처음인 활터의 지형과 풍세를 두루 살펴 먼저 선관(先觀)지형과 후찰(後察)풍세를 하고, 궁체 형성에 있어 군자의 선비정신에 비견되는 과녁의 정면을 향한 양발의 모양(비정비팔非丁非八)과 어깨를 넓어 뜨려 활을 제어함으로서 나타나는 현산인 흉허(胸肅)와 가슴과 어깨축지가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며 기운을 하단전에 모으며 복식호흡을 하는 복실(腹實)이 다음이며, 손은 태산을 받쳐 버티듯 단단히 하고(전주태산前推泰山), 각지손은 연산하게 펼쳐 마치 호랑이가 맹렬히 돌진하며 꼬리를 치켜들고 달리는 모양과 같은 발시형태(발여호미發如虎尾)로 팔꿈치를 세워 팔꿈치가 처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하여 당기고, 각지손 아귀를 굳건히 한다. 발여호미 형태의 발시는 각지손이 크게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당김과 버팀으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체육 효과가 있음을 말한다. 쏘아서 맞지 않음은(발이부중發而不中) 남의 뜻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자신을 되돌아 살피므로써 그 잘못을 찾아야(반구저기反求諸己) 함을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반복해서 지적하고 수정해 주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미송주가 경산대추약주 ‘추(秋)’ 국제 우수 미각상 수상

미송주가 생산한 ‘경산 대추약주’(대표 권미송 북아파 34세)는 상품평 ‘추(秋)’를 지난 1월 4일 벨기에의 국제 식품로 품평원에 출품하여 주류분야 품평회에서 2020년에 이어 2번째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

20여 개 국가에서 200명의 심사위원이 참가하여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맛과 향, 제품 첫인상, 시각 효과 등 다양한 항목의 종합평가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류분야에서 상당히 영예를 수상했다.

대한민국에서 국제 식품로 품평회에서 수상하고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는 미송주가, OB맥주, 제주 삼다수 외 대동수산, 오미나라, 솔트바이오, 코리아솔트 등 소수이다.

권미송 미송주가 대표는 지난해 11월 6일에도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과 사) 한국 푸드코디네이터 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향토 식품화 대전의 ‘전국 건강증진 개선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산 ‘대추 막걸리’ ‘대추 약주’는 경산지역 특산품인 대추의 씨(한약명 산조인)를 이용하여 국내산 찹쌀과 누룩만을 이용하고 효모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켜 숙성하고 막걸리는 3개월, 대추 약주는 삼양주(3년 담는 술)로 6개월의 숙성 과정을 거쳐 명품 약주가 탄생한다.

권미송 ‘미송주가’ 대표는 취미생활로 야생화를 공부하며 산야의 각종 약용 식물을 이용한 약주 담그기를 해 오다 전국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경산의 특산물 대추를 이용해 보기도 하고 많은 연구 끝에 발표에 관한 특허 기술로 청주와 결합하여 8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경산 대추 약주’를 탄생시켜 2014년 특허를 받았고, 2019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



도 했다.

‘경산대추약주’와 생산되는 대추 막걸리는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유산균과 효소가 많아 면역력을 증대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노화 예방에도 좋은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경산의 대표 명주 ‘경산대추약주 추(秋)’는 한국 식품 연구원의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컨텐츠 진흥원에서 지정한 경북 투어 마스터 6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한식 조리 명인인 권미송 대표는 경산시 우리 음식 연구회를 이끌며 연구와 전수를 위한 체험 활동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민 행복대학 석사과정에도 도전하여 연구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권미송 대표는 “생산시설을 늘려 명품 약주 ‘경산대추약주’를 더 많이 생산하고 홍보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것이 작은 꿈이다.”라고 활짝 웃으며 희망을 보였다.

한청타임즈 권성욱 기자 aafa2011@daum.net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제57차 정기총회 개최



지난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제57차 정기총회가 권이수 회장과 임원 및 운영이사 그리고 원로이신 권자하, 권오신, 권기성 고문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영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국민연례, 감사패 전달, 권

이수 회장 인사말, 경과보고, 감사보고, 22년 결산보고, 및 23년 예산안 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우리 종친회 발전과 후손들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기탁 해 오고 계시는 수석부회장 권평수님께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어서 권이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완주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재임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오신, 권혁신 감사가 22년도 감사보고, 권오조 재무이사의 2022년도 결산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3년에도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새로운 사업계획과 건설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종회 발전과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오늘로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회장 및 감사 2명 선거를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권이수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

선임하였으며, 감사에는 권오신, 권혁신 현 감사가 재선임되었다. 재선임된 권이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재임하는 동안 여러 회원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에게 항상 믿음과 격려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와 함께 자주 만나 소통하고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전주·완주종친회 발전은 물론 회원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권영춘 총무이사

울산종친회 울산제일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안동권씨 울산종친회(회장 권의호)는 지난 2월 14일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이사장 김종길, 병원장 이완)과 병원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울산종친회 권의호 회장은 상호 협력관계에서 울산종친들의 진료시 최적의 의료서비

스 제공을 당부하였고 이에 울산제일병원 김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하여 약25,000여명의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회원 및 가족들의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종친회 권의호 회장, 권영



민 부회장, 권혁환 사무처장, 권영목 총무부장, 권기대 청장년회 총무가 참석하였다.

권영목 총무